

운명의 날 4월 4일...44명이 꿈꾸는 ‘다시 만날 세상’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4일 선고된다. 부인 방탄에 골몰하다가 지난해 12월 3일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대통령 스스로 벌인 친위쿠데타를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짧은 시간에 저지했음에도 여태껏 일상을

위협받고 불안감에 잠 못 들었던 시민들은 ‘다시 만날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맞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광주·전남 각계 시민 44명의 ‘한 줄 희망’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잔인한 봄이 끝나고 진정으로 꽃피는 4월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진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



김희송 연구교수



박고형준 활동가



김형미 관장



김경은 변호사



양재혁 유족회장



임동화 공동대표



김다정 위원장



정성주 상임대표



기유식 사무처장



오주섭 사무처장

진실이 더 이상 무대 뒤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되는 나라
-김진호 나주연극협회 회장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세상을 바란다
-정희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헌법이 개정되고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돼 오월어머니들에게 치유가 되길”-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
-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란다”-조규연 5·18 부상자회 회장
-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 “미래세대가 꿈을 갖고 안정적으로 사는 일상이 돌아오길”-김호균 5·18기록관장

- “상식을 지키는 게 논쟁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백형대 전남역사교사모임 회장
- “대학에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으면”-박찬우 전남대 사학과 학생(전남대 긴급공동행동)
-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화합하는 통합된 사회가 오길”-최장우 광주시고등학교학생의회 의장(광주서석고)
- “사회갈등이 통합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정성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이 와야 한다”-임동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정의로운 사회와 밝은 미래가 열리길 바란다”-류재선 광주시새마을회 회장
- “농민헌법 개헌이 실현돼 농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오길”-이준경 광주시농민회 회장
- “농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
- “국민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나라 걱정 없이 살 수 있길”-김동구 전국한우협회 영암군지부회장

사회갈등이 통합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 “생명을 존중받고 청년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바란다”-김영백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장
- “우리가 사는 한국이 물리적 충돌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길”-신조아 고려인마을 대표
- “현정질서를 파괴한 행위가 정당한 판결을 받기를”-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박대수 전남대민주동우회협의회 공동대표
- “민족 정기를 살리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나라”-김갑제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이사장

- “갈등이 완화되고 화합이 봄꽃처럼 피어나는 사회가 찾아오길”-최두례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
-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세상을 바란다”-정희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양극화 해소, 사회경제적 평등이 되길 바란다”-김다정 광주정년유니온 위원장
- “따뜻한 연대와 상생의 가치가 살아숨쉬는 사회”-기유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광주비상행동 대변인)
- “시민들이 대한민국 운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국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자유롭게 상상하고 미래를 위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세상 오길”-김미승 광주전남작가회 회장
- “잔인한 봄이 끝나고 진정으로 꽃피는 4월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이진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
- “상생, 포용, 공존, 평화의 가치가 우선하는 대한민국”-서권희 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 사무국장
-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나덕주 빛고을예술단 단장
- “상식의 후퇴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정찬혁 광주영화잡지 썬1980 편집장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사회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가 정당한 판결을 받기를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전공의와 의대생이 희망을 품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세상”-김윤하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 “계엄 사태로 촉발된 불안한 정국이 끝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편히 잘 수 있는 나라가 오길 바란다”-김경은 변호사
-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이길 기대한다”-김정호 변호사
- “엘리트 학생 양성 교육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박주정 한국고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연구교수

-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고 온 국민이 존중받는 국가”-윤종태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 “시민의 힘이 역사를 바로잡을 차려다”-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부본부장
- “파면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목포시민주권행동 공동 상임대표)
-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이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이정래 환경실천연합 전남본부 운영위원장
-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끌어가길 바란다”-오주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진실이 더 이상 무대 뒤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되는 나라”-김진호 나주연극협회 회장
- “잘못한 사람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고, 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국승두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침체된 건축 경기를 되살리고 경제가 회복되길 바란다”-김기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회 회장
-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사회”-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세상
-오주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시장직 상실 박홍률 전 목포시장,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 왜?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배우자 행위 공무담임 해당 안돼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27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 부인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박 전 시장 부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때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말이 흘러 나온다. 자신의 배우자로 인해 직을 잃었는데도, 아무런 상관없이 출마가 가능할까. 박 전 시장의 경우 올해 당선 무효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게 목포 시선거관리위원회 설명이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 박 전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지만 내년 예정된 제9회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대상은 직접적인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박 전 시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의 경우 배우자의 행위에 의해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므로, 당사자인 본인은 당해 재보궐선거가 아닌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해석이다. 다만, 박 전 시장 직위 상실에 따라 올해 보궐선거가 치러졌다면 박 전 시장은 출마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는 ‘해당 선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의 ‘법가 유용’ 사건이 유사한 사례로 거론된다. 이 대표의 부인이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 도청 법안카드로 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애초 이 대표의 20대 대선에서 낙선해 ‘당해 선거’와 관련해 받을 불이익이 없었으며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묻지마 살인’ 박대성 2심 사형 구형 검찰이 순천 도심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1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박대성(31)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 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광주고법 21호 법정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 심리로 열린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 이어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구를 배운다고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연재 기자 yjyou@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